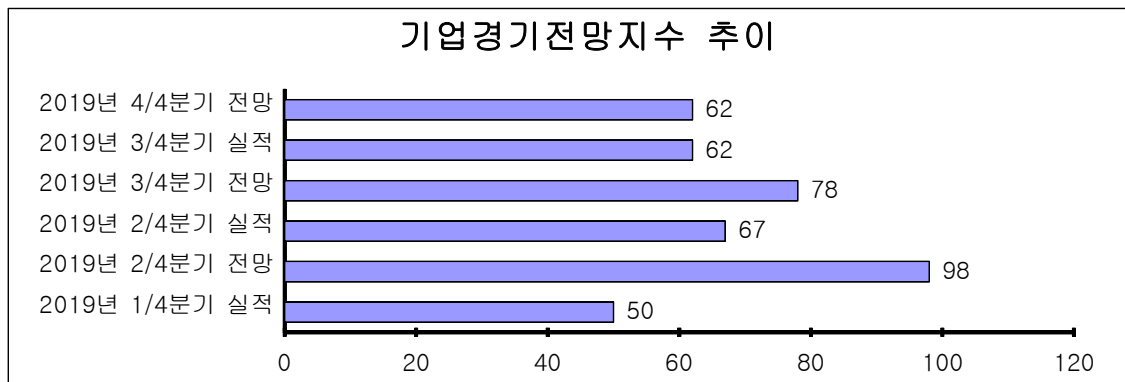


영주상공회의소(회장 조관섭)는 최근 관내 제조업체 30개를 표본대상으로 기업경기전망을 조사한 결과, 2019년도 4/4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 : Business Survey Index)는 지난 분기보다 '16' 포인트 하락한 '62' 을 기록했다. 실적추정치는 전 분기보다 '5' 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기업경기전망지수(BSI)는 기업들의 현장체감경기를 수치화 한 것으로 0 ~ 200 사이로 표시되며, 100을 넘으면 이번 분기 경기가 전 분기에 비해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음을 의미하며, 100미만이면 그 반대다.



**부분별 기업경기전망지수 추이**

	2019년 1/4분기 실적	2019년 2/4분기 전망	2019년 2/4분기 실적	2019년 3/4분기 전망	2019년 3/4분기 실적	2019년 4/4분기 전망
체감경기	50	100	75	76	58	69
매출액	53	100	71	91	62	60
영업이익	43	97	59	67	58	59
자금조달 여건	60	92			50	67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2019년 4/4분기 기업경기 전망은 체감경기 69, 매출액은 60, 영업이익 59, 대체적으로 4/4분기 전망은 3/4분기 전망보다 부정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경기 상황 속에 2019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묻는 사항에 37.0%가 '정부전망치 수준' 이라고 응답했으며 '2% 이하' (25.9%), '정부전망치 이하' (25.9%), 정부전망치 상회(7.4%), '작년 성장률 수준 이상' (3.7%)순으로 뽑혔다.

응답 업체의 올해 영업이익(실적)이 연초 세운 목표치에 달성했는가를 묻는 항목에서는 절반 이상의 업체가 '목표치 미달' (51.9%)에 응답했으며 '목표치 달성(근접)' (48.1%)이라 답하였다. 또한 '목표치 미달'에 대한 세부 사항으로 '내수시장 둔화(45.0%), ' 최저임금·주52시간 등 고용환경 변화(40.0%), '기업관련 규제' (5.0%), '환율·유가변동성 심화' (5.0%), '기타' (5.0%) 순으로 응답하였다.

작년과 비교해 올해 투자 추이를 묻는 사항에선 '불변' (63.0%), '악화' (29.6%), '호전' (7.4%)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악화'에 응답한 경우의 세부 이유로는 '불확실성 증대로 소극적 경영' (55.6%), '원자재값 변동성 확대' (44.4%)로 나타났다.

경제주체인 기업과 정부, 국회의 경제 활성화 노력을 평가하는 사항에는 '기업' (46.6%), '정부' (37.3%), '국회' (16.1%)로 기업의 노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정책 과제를 묻는 사항에는 '고용노동정책 탄력적용' (42.3%), '파격적 규제개혁' (34.6%), 'R&D·인력 지원 강화' (11.5%), '자금조달 유연화' (11.5%) 순으로 '고용노동정책 탄력적용'이 우선 해결되어야 할 정책과제로 나타났다.

○조사기간 : 2019. 9. 16 ~ 9. 27 (휴일제외 10일 동안)

○조사대상 : 영주상공회의소 관내 제조업체

○조사방법 : 전화, FAX

○BSI의 기준치는 100. 100 초과는 호전예상업체가 악화예상업체보다 많음을 의미. 100 미만일 때는 반대임

○BSI 지수=[(호전예상업체수-악화예상업체수)÷ 전체응답업체수] × 100 + 100

○BSI전망치는 다음 분기에 대한 전망치임